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ECRET DEEP

가제 : 비밀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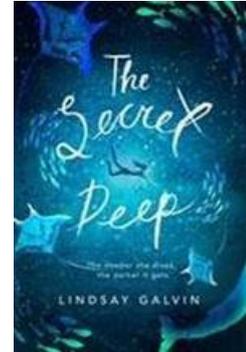
저자 : Lindsay Galvin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고아가 된 두 소녀가 함께 살게 된 괴짜 이모, 낯선 섬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실험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고 둘만 남은 애스터와 파피 두 자매는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로 향한다. 유일한 친척인 이오나 이모가 사는 뉴질랜드 북섬, 기스번이라는 곳까지 날아가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곧 열다섯 살이 되는 애스터와 열한 살인 파피가 영국에 계속 머무를 경우, 제각기 다른 보호 시설에서 떨어져 살게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암 전문 의사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암으로 한창 고생할 때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이오나 이모는 엄마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의 연락으로 겨우 그간 두 자매가 겪은 일들을 알게 됐다. 선뜻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선 이모 덕분에 애스터와 파피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린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모가 두 사람을 데려간 곳은 이모 집이 아닌 '에코빌리지'라는 곳이었고,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이상한 공동체는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모는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몇 년 전, 영국에 놀러 왔을 때 만난 것과는 영 달라진 이모를 두 자매는 믿고 의지해도 되는 걸까? 아무 것도 가능할 수 없어 불안에 떨며 지내던 어느 날, 급기야 에코빌리지에서 의심스러운 화재가 발생하고, 정신없이 달아나던 애스터는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동생 파피를 잃어버리고 낯선 해안에 혼자 남겨진 사실을 깨닫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누군가 계획적으로 불을 내고 자매를 분리시킨 걸까? 애스터와 파피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다시 그곳에서 뉴질랜드까지 각각 열두 시간이 넘는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애스터와 파피는 비행기 안에서 한 소년과 친구가 된다.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파피의 목소리를 듣고 감자칩을 준 그 소년은 순식간에 자매와 친해졌다. 애스터보다 두 살 많은 그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도 폐암 투병 중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난생 처음이라는 두 자매에게 자신이 기스번 토박이라며 꼭 다시 만나서 주변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구 문자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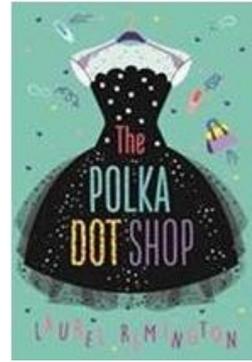
내기 시작한 파피에게 계속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왔다. 이오나 이모는 애스터와 파피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집에는 계약 기간이 덜 끝난 세입자들이 있어서 당장은 들어갈 수 없다면서 에코 빌리지 이야기를 꺼냈다. 이모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원시적인 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려고 만든 작은 공동체라는 설명과 함께, 집이 빌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자는 것이 이모가 하려는 말의 핵심이었다. 정 싫으면 호텔을 잡아서 지내도 된다고는 했지만, 애스터는 왠지 자신들을 맡아준 이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몰랐다고는 하지만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이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다 털어버리지 못했지만, 애스터는 흔쾌히 일종의 ‘캠프’와 비슷하다는 그 자연 속 마을에 가보기로 했다. 공항에서 몇 시간을 달리고 또 달려서 겨우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세상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지은 오두막에는 연구의 취지대로 원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애스터도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이모에게 빼앗겼다. 불도 야외에 모닥불을 피워서 사용할 정도였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 잔머리를 잘 굴려서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둔 파피는 그곳의 낯선 풍경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서 샘에게 몇 장을 보냈는데, 애스터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이 그 외딴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재가 일어난 그날 밤, 마치 불이 날 것을 예상한 것처럼 이모가 혼자 방독면을 쓴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애스터는 어쩌면 이모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닌, 도망쳐야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의심은 파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인도 같은 섬 해안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더욱 확고해진다. 게다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섬에는 애스터와 같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십대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다. 일이 섬뜩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애스터는 일단 사라진 파피부터 찾기 시작한다.

한편, 샘은 할아버지를 통해 기스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에코 빌리지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된다. 할아버지가 암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일종의 임상시험처럼, 허가 받지 않은 새로운 암 치료에 자원할 사람을 모았는데, 그 시험을 이끌었던 나이가드 박사라는 사람이 에코 빌리지를 설립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미 일반적인 암 치료는 듣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악화된 할아버지에게 일주일에 몇 번 나이가드 박사가 준 주사를 맞았던 그 시험 치료가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토록 효과적인 치료법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호기심이 생겨 어떤 치료인지 파헤쳤다. 그 결과, 나이가드 박사가 유전자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개발했으며 외부의 접촉이 일체 차단된 에코 빌리지에서 극비리에 시험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곳의 사진을 몇 장 입수한 샘은 자세히 살펴보다 기겁한다. 며칠 전, 비행기에서 만난 파피라는 어린 소녀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진과 풍경이 같았던 것이다. 나이가드 박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샘과 애스터, 두 사람의 시선을 통해 은밀한 실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린지 갤빈(Lindsay Galvin)은 대학에서 영어와 문학을 공부하고 과학 교사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작품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POLKA DOT SHOP
가제 : 폴카 닷 옷 가게
저자 : Laurel Remington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8년 7월 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15년 타임 지/치킨하우스 출판사 소설 공모전 우승작 『The Secret Cooking Club』 시리즈를 쓴 작가의 신작**

유행에 한창 민감한 나이인 열세 살, 남들이 옷차림으로 조금만 놀려도 상처 받기 쉬운 사춘기 소녀가 그런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속을 끓인다.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가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린 옷들을 모아다가 파는, 헌 옷 가게였기 때문이다! 키도 크고 늘씬한 엄마는 60년대, 70년대 풍 옷을 아무렇게나 걸쳐도 복고적인 멋이 느껴지지만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앤디는 엄마가 귀엽다며 가져다주는 허름한 티셔츠며 길어도 제대로 맞지 않는 청바지, 심지어 남이 입던 속옷까지 입어야 하는 현실이 절망 그 자체다. 그래도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숨길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로 교복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앤디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매주 엄마 손을 붙잡고 대형 쇼핑몰에서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장만해오는 친구들은 ‘패션 경찰’이라도 된 것마냥 다른 사람들의 옷을 일일이 ‘검열’하고,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가 된 앤디는 어릴 때부터 어울리던 친구들을 다 잃고 만다. 프린트된 그림이 짹짹 갈라진 해진 티셔츠에 검은색 옷과 함께 세탁해서 얼룩진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오는 앤디는 절대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낙인 찍혀버렸다.

왜 앤디는 이런 수모를 다 감수하고 묵묵히 놀림을 받아들일까? 네 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뒤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며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엄마 눈에는 아직 귀여운 어린애에 불과한 자신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고르고 골라온 옷들을 ‘절대 입고 싶지 않다’며 물리칠 수가 없었다. 앤디가 가장 바라지 않는 건 엄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었다. 하지만 버려진 속옷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간식 사먹으라고 준 용돈을 오랫동안 모아서 몰래 시내에 나가 새 속옷만 겨우 사왔다. 하지만 겉옷은, 옷 때문에 왕따 당하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옷 좀 그만 가져오라는 속마음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느라 친구들은 다 떨어져나가고 학교 가는 일이 영 즐겁지 않았던 어느 날, 지긋지긋한 헌 옷 생활을 청산하게 해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우연히 엄마 가게에서 발견한, 명품 옷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앤디가 그나마 학교를 우울한 마음으로만 다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만 받던 두 동급생과 절친한 친구가 된 덕분이었다. 뚱뚱한 몸 때문에 돼지라고 놀림 받는 캐리와 휠체어에 탄다는 이유로 스티븐 호킹에 빗대어 아이들이 ‘스티비’라 부르는 앨리스와는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졌다. 다들 이 세 사람과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했고, 혼자 앉을 곳을 찾다 보니 셋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 때부터 앤디, 캐리, 앨리스는 누가 뭐라고 놀리기만 하면 서로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앤디가 낱아빠진 옷만 가져오는 엄마 때문에 시무룩해질 때 새로운 타개책을 제시한 것도 이 두 친구였다. 앤디가 틈만 나면 패션 잡지를 들춰보고 옷과 디자인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챈 캐리는 엄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옷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했다. 그럼 용돈도 벌고 직접 옷도 만져보면서 개성 넘치는 옷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마침 일주일에 며칠씩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의상학과 대학생도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겨우 다섯 살 어린 앤디가 그 일을 대신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다. 방과 후 바로 가게로 달려간 앤디는, 혼자 일하던 폴란드 출신의 아르바이트생, 율란타에게 일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헌 옷 중에서 판매할 만한 옷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율란타의 지시대로 창고로 간 그 날, 앤디의 눈 앞에 엄청난 옷이 나타난다. 지금 막 파리 매장에서 사온 듯한, 고급스러운 새 명품 옷들이 가득 들어 있는 종이가방이 쓰레기나 다름없는 옷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

두툼한 흰색 종이가방부터가 이미 구멍 난 비닐 봉지에 대충 쑤셔 넣은 다른 옷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얼른 그 가방의 내용물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앤디는 입생로랑이며 샤넬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들어도 턱이 딱 벌어지는 명품 브랜드 원피스와 실크 블라우스가 하나하나 비닐에 따로 포장되어 담긴 것을 보고 기겁한다. 대체 누가 이런 옷을 버렸을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입고 싶지만 어른 옷이라 맞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한 앤디는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엄마 몰래 팔기로 한 것이다! 사진기를 찾아낸 앤디는 그 날 늦게, 엄마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게로 다시 내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까만 바탕에 흰색 땡땡이 무늬가 고급스럽게 들어간 샤넬 원피스를 꺼내 놓고 상표가 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뒤 곧바로 인터넷에 판매할 물건으로 등록한다. 정말 팔려서 수익이 생기면 혼자 쓸 생각도 아니었다. 수익이 점점 바닥에 이른 엄마 가게를 살리고, 장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용돈도 늘어날 테니 앤디 자신이 정말 사고 싶은 옷들은 그 때 살 생각이었다. 엄마를 도와 가게도 살리고 본격적으로 패션디자인 공부도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앤디의 이 과감한 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앤디의 요청에 대학입시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한 엄마는 율란타에게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앤디에게 가게를 맡겨 놓은 어느 날, 손님들까지 인정하는 앤디의 탁월한 영업 솜씨에 할 말을 잃는다. 패션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장사 수완은 영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정말 앤디가 쓰러져가는 가게를 살릴 수 있을까? 엄마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착한 소녀의 굳센 도전과 옆에서 응원하는 좋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절로 미소 짓게 한다.

<저자 소개>

로렐 레밍턴(Laurel Remington)은 재생에너지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5년 타임지/치킨하우스 출판사 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The Secret Cooking Club』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했다.